

“매장 문 닫으면 손님 끊겨요”...개문냉방 영업 ‘기승’

광주 변화가 문열고 에어컨 ‘핑핑’
전력사용량 1.4배·전기요금 1.3배↑
“전기료 부담 불구 매출 유지 위해”
지자체 “상인에 도움 줄 행정조치”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와 장마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 주요 상가 등지에서 매장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문냉방은 전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현행법상 금지되었지만, 상인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수많은 상가가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과 창문 등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었다.

이날 최고기온은 30도에 육박했고 오후 늦게 비가 예정돼 하루 종일 고온다습한 날씨를 보였지만 문이 열려있는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강한 냉기가 돌아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문이 열린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내부를 둘러보면서 더위를 식히는 등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이런 개문냉방 영업 행태는 충장로 일대 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변화가·식당가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상점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냉방을 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개문냉방은 실외기가 내뿜는 열풍을 늘려 도심 열섬 현상과 전력 낭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개문냉·난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4조 등과 시행령 등에 따라 금지되며 이에 근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평년보다 더

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치(93.6GW)보다 높은 97.2G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수요는 8월 2주 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능력은 104.2GW 규모다. 전력 당국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공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상인들은 전기료 등이 부담되지만 고객 유지를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

하다고 토로했다.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와 에어컨을 일찍 가동하기 시작했다. 몇 년 새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공과금 부담이 가중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여름철에는 가게 내 환기도 자주 해줘야 해서 문을 수시로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요

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할 때와 열어놓지 않았을 때의 매출액 차이가 분명해 여름에는 문을 수시로 열어놓는 편”이라며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문을 열고 손님을 끌어모으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여름철 전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변화가·식당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영업 방지 집중 홍보·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문냉방 영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고시했을 때만 단속 및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계도와 홍보활동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며 “여름철을 맞아 주요 상권 등을 중심으로 냉방시 개문 자체와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의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홍보 현장에 나가보면 일부 상인들이 문을 닫으면 매출이 떨어진다며 하소연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며 “여름철 전력 수요 안정을 위해 상인들의 개문냉방 영업 자체와 시민들의 생활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결정 보류

추가 자료 요청...내일 2차 회의
학교 지원을 높일 홍보방안 등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 문제로 수년째 정권미달 사태를 겪는 명진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과 관련 학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4일 시교육청은 최근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유보하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자료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학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 자체 홍보 방안, 반대 민원 대처 방안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오는 16일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2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명진고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릴 의향이 있다면 즉별 경영 체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교육청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답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시교육청, ‘2024 광주진로진학박람회’ 개최

19~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30개 대학 182개 부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9~2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 광주진로진학박람회’는 의대 정원 증원 등 변화하는 입시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130개 대학이 참여해 182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올해 열리는 대입 박람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문가도 참여해 대입진학

담을 진행한다.

19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소속 박문수 청원여자와 등학교 교사가 ‘2025 대입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윤종호 순심고등학교 교사가 ‘2025 의약학계열 지원전략’을 소개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EBS 대표강사 윤운구 선생이 ‘성공하는 대입 큐레이팅’ 특강을 진행한다. 또 진학전문교사 60명이 고3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1대1 수시 대입 진학상담을 운영한다. 대학 입학사정관과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3 학생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 공동 대입설명회 △광주·전남권 대학 공동 대입설명회 △각 대학별 대입설명회 △음악·미술·체육 계열 대입 설명회 등도 열린다.

고등학교별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부스 40개도 마련된다. 각 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례 △특성화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사례 △교과별 선택과목 안내 △빛고을온학교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생 진로 선택을 위한 1대1 맞춤형 진로상담, 진로 및 창업체험 부스, 맞춤형 진로특강 등도 운영된다.

광주진로진학박람회에서 진행하는 1대1 수시 대입 상담 및 대입설명회, 특강 참여신청은 누리집(www.jinhakexpo.or.kr)에서 할 수 있다.

강주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

전국 총판/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파크골프 100만 시대, 국내 최고 파크골프채 생산 브랜드
뉴월드파크골프와 함께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 총판/대리점** : 파크골프 관련업체 종사자 우대 (각 지역 전체)
- 영업사원** : 파크골프채 판매에 관심있는 분 (차량 소지자 우대)
- 판매 품명** : 파크골프채, 파크골프용품
- 대표전화** : 1551-7150, 010-3509-4191
- 본사주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치산길 26 (보경잔디농장내)
생산공장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길 22



NEW WORLD PARK GOLF 뉴월드파크골프